

“지혜복은 무량집 보물 되니 많이 지으라”



대나무 그늘
활산문도회 간행
올리브 그린 펄먼
비매출

“복을 빌고 짓는 일만 서두르지 말고, 지어놓은 복이나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 돈을 모아놓고 쓸 줄 모르며, 복을 지어 놓고도 가질 줄 모릅니다. 부처님이 원하신 복은 유루복이 아닌 무루복이요, 쇠함 없는 밝은 지혜복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루복은 무량집의 보물이 되지만, 유루복은 삼생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생의 원수’란 한 생은 복 짓느라 수고하고, 한 생은 복받느라 수고하며, 또 한 생은 복이 더해 무너짐에 정신 못 차라니 원수라는 말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열반하신 활산당 성수 대종사의 어록집 《대나무 그늘》이 간행됐다. 성수 스님은 “다른 것 다 버리고 보물을 찾아가라. 보물을 찾아서 알고 살면 잘 사는 것”이라며 “시방세계가 눈을 깜박이는 순간 다 보아도 모자라는데 무엇이 그리 바쁜가. 볼 때는 내 것이고 안 볼 때는 남의 것이다. 그러나 욕심내면 내 것이 아니다”고 후학들의 정신을 당부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별써 스님의 열반 1주기가 다가온다. 성수 스님 제자들이 1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생전 법어와 자필 원고, 사진첩 등 10권중에서 평소 강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출재가를 가리지 않고 눈 밝은 선 지식이 될 불종자를 길러내는데 일평생 매진하신 스님의 발자취를 담았다. 주로 이 책에 들어 있는 법어들은 40여년 전부터 하셨던 대중설법과 상단법문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때론 직설적이고 투박한 화법이 다소 거칠거나 낯설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꾸밈을 싫어하신 스님의 소박하고 울긋불긋한 그대로 나타나 바로 옆에서 스님이 직접 들려주는 듯한 현장감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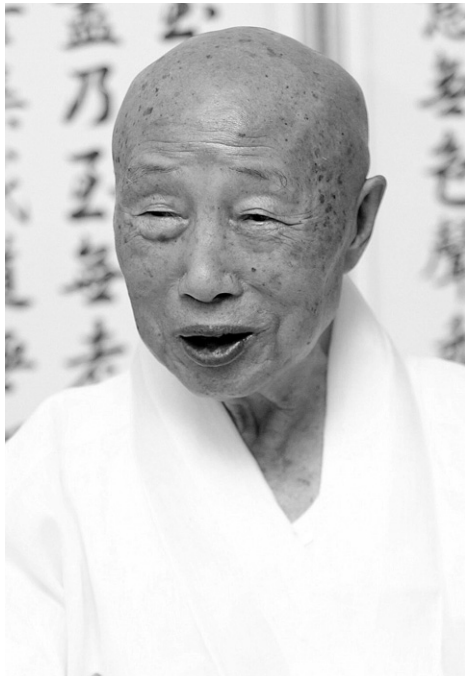
성수 스님은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성수 스님 열반 1주기 맞아 어록 출간
직설적 투박한 화법, 곧은 성품 드러나
한국불교 이끌 인재봉사에 평생 매진

동산 스님을 계사로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67년 조계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마곡사 등 주요 사찰의 주지를 거쳐 10.27 법난 직후인 1981년 제18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혼란스런 종단을 수습했다. 2004년 종단 최고 품계인 대종사(大宗師) 법계를 받았으며, 2005~2008년에는 종단 스님들에게 계를 주는 전계대화상을 역임했다.

생전에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범수선원을 비롯해 경남 산청 해동선원, 함양 황대선원 3곳을 창건해 조실로 주석하기도 했다.

특히 스님은 조계사 어린이 법회를 비롯해 중고생 및 대학생, 심지어는 교도소 재소자 법회에 이르기까지 전법이 필요한 곳이면 한



결음에 달려가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수 스님은 지위고하와 장소의 귀천을 불문하고 전국의 법회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시다보니 시간이 아끼기 위해 속도위반(?)을 하신 적도 있다고 이 책에서 털어 놓으셨다.

범수선원 범우회 김상규 명예회장은 “차에만 오르면 빨리 갈 것을 재촉하는 이유를 묻자 스님은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아까우니 그 시간에 공부하기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라고 답했다”고 회고했다.

김 회장은 “스님은 10시간 차를 타고 피로를 느끼지 않았는데 아마도 사자 새끼를 키우기 위한 좋은 자리를 찾아 급하게 동분서

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을 읽다보면 청년시절 구도여정을 통해 여러 스님들과의 인연도 엿볼 수 있다. 한번은 상주 감장사에서 금봉 스님과 성철 스님이 서로 생각하고 동고동락하기로 하고 수행 타마하는데 성수 스님이 우연히 여기에 동참하게 됐다. 그런데 두 스님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 ‘아상’을 보이자 금봉 스님 보고 ‘성철 스님 보마리 못말면 스님도 자격이 없습디다’라고 쏘아 부쳤더니, 금봉 스님이 “성수가 그 말 잘 잘했다. 내가 항상 성철 공부 병통을 일러주길 원했는데 마침 제발로 걸어왔으니 이 기회에 성철의 병을 못풀어 주면 성수 네가 천하에 다니면서 내 욕을 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끝내 성철 스님은 여전히 함구무언을 했고, 금봉 스님이 잡화를 하려 하자, 성수 스님은 “이게 무슨 장난이요?”라며 활을 하면서 한마디 했다. “달 불 마음이 없는데 손가락만 바쁘구려”라고. 성수 스님의 선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발심수행장〉과 〈자경문〉 같은 초심자들이 읽고 새겨야 할 경전들을 손수 해석한 경해편과 직접 지은 선시 등을 읽다보면 구도정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동분서주한 스님의 수행자적 풍모도 느낄 수 있다.

활산문도회 대표 태운 스님(前 불교TV 회장)은 “은사 스님은 물질에는 욕심이 없었지만 사람 키우는 인재 봉사에 만큼은 큰 욕심을 내셨다”면서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목은 땅에서 새 사람이 나지 않는 밤’이라며 한국불교를 이끌 새 인재를 길러내는데 온 힘을 쏟으셨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50경전 공부하면 불교 강의도 할 수 있어”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지안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3천원



“경전 이를 50개만 알면 불교와 친해집니다. 경전 내용을 꿰뚫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 7할은 강사가 가능하지만, 한국 불교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이는 경전 내용을 알만큼 많이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도사 강주를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과 조계종 총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으로 승가교육에 매진중인 지안 스님(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 50개 경전의 핵심 내용을 가려 뽑은 책을 펴냈다.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등등.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서 찾지 말고 마음에서 찾으라는 뜻의 이 말은,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불교의 종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달마 대사가 교리와 지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당시 풍토를 꼬집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오히려 풍성한 불교 교리와 방대한 경전의 실체를 방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불교에는 그만큼 고차원적인 교리와 수많은 경전이 있다. 종종 경전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문자가 경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전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교리와 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 지안스님은 불교를 진정으로 자기 삶에 활용하고, 길잡이로 삼으려면 교리를 배우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삶의 옳고 그른 기준이 되는 계(戒),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는 정(定), 지혜를 말하는 혜(慧)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불교 전체를 설명한다. 이 용어들을 현대에서 통용하는 언어로 바꿔 얘기하자면 곧, 윤리, 신앙, 철학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된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기에 불교 공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 전체



를 돌보게 하고, 개개인을 성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는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엮은 책이다. 1부에서는 불교 교리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2부에서는 경전 오십 종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초기경전을 대표하는 《순타니파타》부터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받는 《화엄경》까지 50종의 경전을 골라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여 불교 경전의 전반을

50경전 핵심 가려뽑아
경전통한 교리 이해 중요
불교는 윤리, 신앙, 철학 조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팔만대장경이라고 말할듯 불교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경전이 있다. 경전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다 하여도 이 책에서처럼 몇몇 경전 내용을 해설해 놓은 것을 읽는다면 경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저자 지안 스님은?

1947년에 태어나 1970년 출가했다. 통도사에서 백안 스님에게 불도의 길을 배운다.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및 역경위원장을 역임했다. 35년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는 중이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립 승가대학원장으로 승가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반야불교학당과 반야경전교실을 개설하여 많은 제자 불자를 위한 교학 교육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기신론 강의》 《신심명 강의》 《기초경전해설》 《보현행원품 강의》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처음처럼(초발심자경문)》 등과 역서로는 《대반니원경》 《대승기신론강해》 《왕오천축국전》 등이 있다.

티베트 밀교의 삶과 죽음 다룬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정성준 옮김 | 일빛 펄먼
2만8천원



모든 인간은 죽음과 직면한다. 사후의 의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사람은 이르듯 늦든 간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며, 임종을 맞이하는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스승과 그 조력자가 낭독, 낭송하는 방식을 통하여 입증하는 자가 평화롭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육체가 분해되는 공포스러운 경계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은 티베트 밀교의 삶과 죽음을 다룬 경전으로 저승으로의 여행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펼쳐보이는 것은 죽음과 재탄생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광경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여행자는 이 과정에 있을 때는 단지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의식체일 뿐이다.

하지만 경전 내용은 평소 불교에 관심 많았다고 할지라도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죽음에 대한 막연함이 있고, 불교의 생사관도 난해함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

이 책 도해 《티베트 사자의 서》는 ‘중음문 교구도대법’이라는 오래된 경전의 정수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정성들여 수백장의 삽화와 도표를 설계 제작했고, 동시에 본문 다음에 생동감 있고, 구체적 마음에 대해 보충 설명을 곁들였다. 또한 쉬운 번역은 독자가 죽음을 통해 거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과학과 의학 접목 통한 호흡법 소개

참호흡 선법

수신오 지음 | 팬덤북스 펴냄 | 1만5천원



저자가 그동안 수련을 하면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현대 과학과 의학적 접목을 통해 체계를 이루어 구성한 호흡법에 관한 책이다. 호흡과 과학적이야 하는 이유, 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인지, 호흡보다 먼저 해야 할 이완의 중요성, 장치기만으로 부처가 되는 비결, 자연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들숨과 날숨에도 각각 다른 호흡법이 필요한 이유 등 참된 호흡을 위한 수행 비결을 의학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과거의 미사여구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하여 신체와 정신의 건강 모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많은 수행 지도자들이 지구촌 곳곳서 자기 자신들이 터득한 다양한 호흡법으로 수련과 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용맹 수련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수행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해 병들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수행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호흡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할 때는 이미 호흡 근육들이 매우 심각하게 굳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례를 일깨워주며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저자는 “자신이 하는 수행법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며 주위에서 보고 들은 풍월 등으로 오로지 스스로 정하고 만족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전략해 버렸다”고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워앰프 앰프

스테레오 앰프

• 고품질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중, 고등과정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발원지이며 청소년 인성교육의 20년 전통인 **골굴사 부설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교는 검정고시를 대비한 교과학습 지도와 다양한 전통문화 실습과 선무도, 승마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성을 치유하는 대안학교입니다.

▶ **모집대상 및 기간**

- 중등과정 20명, 고등과정 10명
- 2013년 1월 ~ 2월 중 수시로 개별상담

▶ **학교특성** 선무도를 비롯한 전통무예 수련과 승마교육

- 템플스테이 외국인 연인원 7천명과 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생활
- 선무도 승단후 (약1년) 공연단 참가시 장학금 지급
- 선무도 사범, 법사로 육성· 국내,외 자원으로 파견
- 동진출가 발심자녀 결혼가정 자녀는 학비전액 무료

▶ 전 화 : 070-8870-0246, 054)775-1689
홈페이지 : www.golgusa.com,
cafe: daum.net/sunmudoschool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단법인 선무도대금강문, 선무도화랑사관학교